

부산시, 벤처 투자 2.8%로 '깡충'... 기술창업·모펀드로 확대

지난해 지역 벤처투자 1842억 달성
지역 VC 19곳 AC 28곳으로 증가
모펀드 3000억, 자펀드 투자 돌입
올해 5000억 추진 총2조 목표 설정

부산시는 지난해 지역 벤처 투자 실적이 1842억원을 달성했으며 벤처 투자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벤처 투자 비율은 박형준 시장 임기 초기인 2021년 1.6% 수준에서 2024년 2.8%까지 증가했다. 지역 벤처 투자사(VC)도 지사를 포함해 2021년 기준 11개 사에서 19개 사로, 창업 기획자(AC)는 15개 사에서 무려 28개 사로 늘었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 지역 주도로 조성한 모펀드인 '미래성장벤처펀드'의 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결성, 올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등 지역 혁신 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 투자 확대와 다각적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지역 벤처 투자액이 1842억원을 기록하며 투자 비율도 꾸준히 높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특히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지방시대벤처펀드'도 시가 우선 협상 지자체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부산혁신스케일업펀드'를 조성하며 2000억원 상당의 자펀드를 연내 결성할 계획이다.

시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며 글로벌 도시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부산시 9대 전략 산업'을 이끌어가는 초기, 성장 단계 창

업·벤처 기업과 스마트 첨단 제조 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주축적 투자 대상으로 지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조성하는 모태 기반 초기 창업 분야 펀드 조성을 위해 20억원을 편성, 당초 결성 총액의 10%였던 시 출자 금액을 최대 20%로 확대했다.

지난해 지역 창업 생태계 관계자 간담회 때 지역 투자사들의 주요 제안

사항 중 하나였던 시의 기관 출자자(LP) 참여 확대 요청을 적극 반영했다.

또 지역 대학의 인적 자원과 기술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에도 출자금 10억원을 배정, 대학 기술 창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역 벤처 투자 비율은 3%대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며 시는 2030년까지 추가로 8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총 2조원까지 투자함으로써 지역 벤처 투자 비율을 4%대까지 증가시킬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우리 시는 올해 설립된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을 중심으로 지역 투자 활성화와 적극적인 투자 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역 최초로 거대 신생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술 창업 기업 발굴·보육·투자·기반 시설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창원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창원시는 3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2026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부서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심사, 온라인 투표, 예산안 편성·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연도에 시행되는 제도다. 이번 공모는 ▲시 정책 사업 ▲구 정책 사업 ▲읍면동 생활 안전형 사업으로 총 3개 분야 3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포항시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

포항시는 17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협업해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 대상 차량이 본인 명의의 차량이거나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인 자다. 단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대구·경북 지역 내 한국도로공사 전 영업소 사무실에서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울진군 관광객 대상 농어촌버스 무료

울진군은 17일부터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행한다.

이번 정책은 이용객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 촉진 등을 위해 추진되었다. 1월 1일 철도개통과 함께 농어촌버스 무료 시행으로 군민 중심 복지 향상과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 버스 운영 사와의 협의와 예산 확보 및 버스 운영 체계 점검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완료했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news8082@

청도군 명품 먹거리 관광지로 도약

청도군이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2025년도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의 최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청도군 유흥리 일원에 조성된 유천문화마을이 지역 대표 먹거리 관광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지난 2월 3일부터 21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영주시, 영천시, 청도군, 봉화군 등 4개 지역이 서류 심사를 통과했으며, 이후 현장 평가 및 발표를 거쳐 청도군(유천문화마을)과 영천시(우로지 공원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

/청도(경북)=김준환 기자 kih9@

보성군 "찾잎 따고, 추억도 담으세요"

오는 5월 2~6일까지 축제 개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茶) 문화 축제인 '보성다향대축제'가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보성군 한국 차문화공원과 보성차밭 일원에서 개최된다.

보성군은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에 나섰으며, 이번 축제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녹차수도 보성'의 진면목을 선보일 계획이다.

'보성다향대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4~2025 문화관광축제'이자 '전라남도 대표 유망축제'로 선정되며 그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해 12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보성다향대 축제는 차의 본고장 보성에서 차 문화

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보성에서 피어나는 천년 차의 약속'을 주제로, 한국 차 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차를 매개로 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보성차생산자조합이 주최하고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보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축제를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방문객들은 차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차의 가치와 멋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보성(전남)=양수영 기자

전남도 "수소산업으로 미래 연다"

1천500억 수소인프라 추진

전라남도가 수소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추진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소연합)가 주관한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돼 2024년 1차년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2차년도(202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실제로 전남도는 지난해 14개 기업을 예비수소전문기업으로 선정해 기업당 최대 6천만 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수혜 기업은 특히 등록·

출원 14건, 시제품 제작 8건 등 기술력 향상, 시장 진출 역량 강화에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수소전문가 19명 양성, 신규 고용 창출 58명 결실도 봤다.

특히 실적이 우수한 2개 기업은 산업부의 수소전문기업 신청 요건을 충족해 5월께 수소전문기업 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다.

전남도의 지원을 받은 한 수혜기업 대표는 "아직 국내 수소산업이 낮은 기술 수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남도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의 꼼꼼한 1대1 컨설팅 덕분에 신기술 개발로 매출이 크게 늘었다"며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846억원(국비 360억원, 시비 486억원)을 투입해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 생태계서비스 이익증대, 생물다양성 주류화 등 3개 전략과 31개 세부 실천과제를 담은 '광주시 생물다양성 전략'을 추진한다. /광주광역시

광주시, 호남 첫 자연공존 도시전략 추진

도시 생태축 복원 등 846억 투입
람사르습지 지정·탄소흡수원 조성

광주시가 도시 생태축·훼손지 복원,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 생태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846억원(국비 360억원, 시비 486억원)을 투입해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 ▲생태계서비스 이익증대 ▲생물다양성 주류화 등 3개 전략과 31개 세부 실천과제를 담은 '광주시 생물다양성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

해 도시 생태축·훼손지 복원,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도입, 장릉습지 람사르습지 지정 및 탄소흡수원 조성 등 14개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환경부의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과 연계해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하는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도심 내 자연공존지역(OECM)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또 '생태계서비스 이익 증대'를 위해 도시 생태계 서비스 가치평가 및 고유지표 발굴, 도시녹지 및 공원 확충, 생태숲 조성·관리 등 8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양수영 기자

경주시, 야간경제 활성화 나선다

세계축제 씨앗 오늘부터 나흘간 개막

전 세계 축제 리더들이 모이는 'Global Festival Summit 2025'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경주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축제와 신 야간경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 축제가 도시 경제와 지역 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특히 야간 경제구역 인증제도(피플플래그) 등 새로운 개념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올해 씨앗은 세계축제협회(IFEA) 총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경북도지사, 태국 5개 도시 축제 관계자 등 20여 명을 비롯해 아시아 11개국 50개 도시에서 200여 명이 참여한다. 세계축제협회(IFEA) 이사진과 유명 축제 전문가들도 참석해 글로벌 축제 트렌드를 공유할 계획이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그 결과 수혜 기업은 특히 등록·